

先行技術情報添付制度 施行

—美特許廳, 3月1일부터—

美國은 特許出願 및 審査에 관한 施行規則을 一部 改正하여 3月1日 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要旨인즉 特許出願人은 출원 하는 技術에 관한 모든 情報를 添付하여 審査官에게 提出해야 한다는 先行技術情報添付制度를 規定化 한 것이다.

改正의 背景은 심사가 遲延됨으로써 未審査件數가 激增하고 特許紛爭이 增加하여 反트러스트法의 立場에서 法院의 關心이 높아지고 있는 점과 특허출원인이 알고 있는 情報를 特許廳에 모두 報告할 義務가 있다는 觀念등에 있다.

미국은 1960年代 以來 未審査件數가 年間 30萬件을 넘고 있으며 1964년쯤에는 審査處理期間이 37個月이 걸렸었다.

그뒤 簡略審査制度를 導入한바 미심사건수가 20만건 이하로 減少되었고 심사기간도 19個月로 短縮되었다.

한편 上院議會에서는 지난 2월에 法案 2,255號를 議決하여 下院에 附議하였으나 年內通過도 힘들뿐 아니라 의결된다해도 修正이 豫想되는데 그 骨子は 다음과 같다.

① 출원인은 출원한 技術의 特許性(新規性)을 證明하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② 第3者는 公告後 1年間은 그 특허에 대하여 異議申請의 權利가 있다.

③ 1년을 지나도 制限은 있으나 再審査請求는 할 수 있다.

④ 늦추기 심사제도도 導入한다.

이에 앞서 시행중인 선행기술정보 補正제도가 뜻하는 바는 특허출

원인은 출원하는 技術에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說明과 출원하는 發明과의 明確한 差異를 설명하는 한편 이와 關聯되는 모든 정보를 審査官에 제출케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는 출원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만약 선행기술을 배고 제출한 정보

라는 것이 들어나면 특허청에 對한 虛偽申請으로 看做하게 된다.

이러한 措施는 심사의 合理化와 더불어 특허분쟁이 發生했을 때에 對備한 重要關聯情報資料로 삼으려는 뜻도 內包되어 있다. 또한 外國人이 미국에 출원할 때 用語에 不便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英語의 宣誓文이나 出願書에 출원인이 理解할 수 있는 主要用語를 併記토록 한 것이며, 이 제도는 1978년 1월 1일 부터 適用하게 끔 準備중에 있다.

PCT 發効準備進捗

—WIPO서 서둘러—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特許協力條約機構(PCT)의 年內 發効에 앞서 PCT關係準備會議을 열고 國際調查, 刊行物, 圖面, 財政問題 등의 作業을 거의 끝냈으며 10月10日 부터 18日사이에 열리는 技術協力中間委會에 報告할 예정이다.

준비회의의 내용인즉 국제조사 의 최종안이 마무리되는 동시에 國際豫備審査의 가이드라인을 6월20일 부터 24일에 열리는 준비회의에서 審議할 것이며 간행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國際公開를 每件마다에 A4의 팜플렛形式을 取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의 焦點은 電算機를 利

用하는 寫植方法의 採擇 與否에 있었으나 英·美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否決시키는 대신 마스스타畫像의 매뉴얼을 事務局에서 作成한 후 外注에 의해 Offset印刷기로 合意하였다.

또한 調查報告書의 樣式을 簡素化하기 위하여 유럽特許機構(EPC)方式을 採用하기로 內定했다.

도면은 EPC도면을 본따기로 하고 재정문제는 PCT가 발효해도 當分間은 收入이 없을 것으로 보아 混合分擔金制度를 採用하되 締約國外에 發効까지의 準備段階에 參加한 國家들로부터 協調를 받기로 했다.

박테리아寄託制度採擇

—WIPO 提案으로 外交官會議서—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의 提案에 따라 지난 4月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微生物의 寄託에 관한 外交官會議에서는 미생물기탁의 國際的承認制度를 採擇하였다.

현재 박테리아를 利用한 發明(抗生物質등)의 特許를 取得하려면 그 菌株를 希望하는 나라에 기탁하는 節次가 필요하다. 특허를 희망하는

나라에 出願과 同時에 기탁함은 第3者가 균주를 容易하게 入手하고 발명을 이용하기 쉽게 하려는데 있다.

이번에 채택된 제도는 國際적으로 승인된 機關에 기탁함으로써 특허가 취득되게 끔 그 절차를 簡素化하려는 것이다. 이 제도가 各國에서 批准되면 2年後인 1979년쯤에는 發効될 可能性이 엿보인다.